

기아 첫 전용전기차 'EV6' 타보니

정숙함에 가속 능력 탁월... 1회 충전 최대 475km 달린다

묵직하지만 안정감 있는 핸들링
국산차 모델 중 가장 빠른 제로백
넓은 실내공간에 '차박' 가능
원격진단 시스템 탑재 상시 점검

매끄러운 곡선의 디자인에서 익숙함이 느껴졌다. 미래지향적이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녔음에도, 푸근한 인상을 품고 있는 덕분에 '전기차'라는 이질감이 오히려 친숙했다. 전기차답게 '조용'했지만 가속페달을 밟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강력함을 보여줬다.

최근 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EV6를 타고 광주광역시 구 광천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담양 메타프 로망스까지 왕복 약 50km를 달려왔다. 이날 시승 차량은 'EV6 롱레인지 GT-Line 2WD A/T 기본형' 모델이었다. 옵션은 하이테크, 섀루프, 메리디안사운드, 빌트인캠으로, 색상은 스노우화이트페인트이다.

시승을 위해 센터 콘솔에 위치한 시동(전원) 버튼을 눌렀다. 전기차답게 정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주행 초반 핸들링은 생각했던 것보다 묵직하면서도 안정감이 있었다.

본격적인 도로에 접어들면서 가볍게 가속 페달을

밟고 속도를 올렸다. 역시 전기차 특유의 정숙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감을 보여줬다. 운전하는 게 즐거울 정도였다.

넓은 도로에 들어서면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봤다. EV6 GT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다. 국산차 모델 중 가장 빠른 제로백을 보유하고 있다. 덕분에 순간 가속시 마치 공상과학영화 속에서 우주선이 '뿡'하고 빨리 들어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주행 내내 EV6는 안정적인 주행 능력을 보여줬고, 그 주행 성능 역시 만족스러웠다.

주행 성능 외에도 마음에 쏙 들었던 부분이 또 있다. 바로 넓은 실내 공간이다. EV6의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축간거리(휠베이스)는 2900mm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과 좌석간 거리 '레그룸'이 상당히 넉넉했다.

여기에 2열 시트를 접으면 1300l까지 공간이 확보돼 최근 유행인 '차박' (차+숙박)이 가능할 뿐더러, 엔진이 빠진 전방 후드 안에 52l의 '프렁크' (프론트 트렁크) 공간까지 갖춰 짐을 넣기 여유로워 보였다. 4WD 모델의 경우 프렁크 공간은 20l다.

이밖에 실내 패널 중앙에 있는 버튼 하나로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시스템을 오갈 수 있고, 터치식으로 조작이 수월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화면 터치로 간단히 높이 등을 조절할 수 있었다. 바닥 연결 없이 중앙에 떠 있는 듯한 센터콘솔은 공간을 활용하기 편했다. 특히 '메리디



EV6 실내에는 운전자 중심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슬림한 대시보드가 넓은 개방감을 준다.

안사운드'에서 들려오는 고품질의 음악은 운전의 즐거움을 더했다.

무엇보다 기아 EV6의 최고 장점은 주행거리다. 77.4kWh 배터리가 장착된 EV6 롱레인지 모델의 1회 충전시 최대 주행거리(산업부 인증 기준)는 475km(2WD, 19인치 휠, 빌트인 캠 미적용 기준)다. 전기차 구매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 주행 거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또 차량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원격진단 시스템을 탑재했다. 원격진단 시스템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주차 또는 충전 중 고전압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 속에서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지니고 있는 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EV6. 최근 'EV6 롱레인지 GT-Line 2WD A/T 기본형' 모델을 타고 약 50km 구간을 주행해왔다.

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800V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멀티 충전 시스템, 이동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개념의 V2L (Vehicle To Load), 고객 중심의 최첨단 안전-편의 사양 등이 적용됐다.

EV6의 판매 가격(친환경차 세제혜택 및 개별소비세 3.5% 반영)은 스탠다드 모델 ▲에어(Air) 4730만원 ▲어스(Earth) 5155만원이다. 롱 레인지 모델은 ▲에어(Air) 5120만원 ▲어스(Earth) 5595만원 ▲GT-Line 568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첫 결실 '캐스퍼' 공식 출시

온라인서 차량 구매까지 원스톱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가 29일 공식 출시됐다.

현대차는 이날 캐스퍼 온라인 발표회 '캐스퍼 프리미어'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캐스퍼는 전날 마감된 사전계약에서 총 2만3766대를 기록해 올해 생산 목표(1만2000대)의 2배 가량을 기록하는 등 출시를 앞두고 높은 인기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캐스퍼는 사전 계약 첫날인 14일 1만8940대를 기록하며 종전 최고였던 베스트셀링 모델 그랜저(1만7294대)를 제치고 현대차 내연기관차 중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캐스퍼는 현대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객직접판매(D2C), 즉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차량으로, 전용 웹사이트 '캐스퍼 온라인'에서 고객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차량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했다.

웹사이트에서 트림(등급)별 가격과 사양, 선택 품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사양 명칭을 선택하면 해당 사양에 대한 설명을 이미지·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기존 실물 카탈로그 형식의 이미지 파일도 있다.

3D로 각 사양이 적용된 차량의 내외장 디자인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령·성별에 따른 사양 추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계약시에는 카카오톡과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전자 서명이 가능하고 계약



후에도 웹페이지를 통해 직접 계약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차량 출고 후에는 배송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차량은 고객이 직접 지정한 장소나 공식 인도장으로 운영하는 전국 200여개 지정 블루핸즈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렉서스 하이브리드 세단 'New ES 300h' 국내 출시

7세대 ES 부분 변경 모델
안전·편의 사양 강화

렉서스코리아는 하이브리드 세단 'New(뉴) ES 300h'를 국내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뉴 ES 300h는 7세대 ES의 부분 변경 모델로 안전·편의 사양이 강화되고 블랙박스과 하이패스가 기본 장착됐다.

뉴 ES 300h의 스트롱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5l D-4S 가솔린 엔진에 대용량 배터리, 2개의 모터가 장착돼 저속에서 모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며, 연비는 17.2km/l이다.

최고 출력 178마력(PS), 최대 토크 22.5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안전 주행을 돕는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LSS+)도 강화됐다. 감지 범위가 확대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커브 감속 기능이 추가된 다이내믹 레이다 크루즈 컨트롤(DRCC), 긴급 조향 어시스트(ESA) 지원 기능이 추가됐다.

터치스크린 기능이 적용된 12.3인치의 고해상도 모니터는 기존 대비 112mm 앞으로 배치돼 운전



자의 조작 편의성이 향상됐다.

렉서스코리아는 'ES 300h F SPORT' 모델도 출시했다. 스포츠 모델에는 19인치 블랙 휠, 전용 스포츠 시트, 전자제어 가변 서스펜션 등이 추가됐다.

뉴 ES 300h 가격(개별소비세 3.5% 기준)은 ▲렉서리 6190만원 ▲렉서리 플러스 6400만원 ▲이그제큐티브 6860만원 ▲F SPORT 711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